

가정 내 노인 학대 및 자기방임 현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Trends of the Elder Abuse and Self-neglect at Home

손 화 희*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Hwahee Son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oongeui Women's College

(초록)

본 논문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및 자기방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이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2017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노인 학대 관련 자료 중 시설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를 제외한 가정 내 노인 학대 사례 4,129건이었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정 내 노인 학대 유형은 학대 피해자 노인의 성별, 가구형태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주요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 내 노인 학대 및 자기방임이 발생하는 가족 환경적 원인으로 학대 피해자-행위자 간의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많았으며, 자기방임의 경우에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노인 학대에 관한 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능력 강화 및 그에 대한 지원, 가정 내 노인부양과 돌봄 가족 지원체계 구축, 노인 학대 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노인 학대, 자기방임, 노인문제, 노인보호전문기관

* 본 논문은 2018년도 숭의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이다. 본 연구는 2019년 6월 14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3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분석 자료의 제공에 도움을 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감사를 드린다.

** 교신저자: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2길 10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부교수 손화희
(e-mail: shh2003@sewc.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trends of the elder abuse and self-neglect that take place at home. The data reported to the Korean Elder Protection Agency in 2017 were used in this study, and the data were 4,129 cases of the elder abuse and self-neglect occurred at home. Cross-tabulation analyses were used to analyze several categorical data.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s, between recipients of the State basic pensions and non-recipients, and among household types. As for the family-environmental agent of the elder abuse and self-neglect at home, the most predicting factor was the conflict between the victim and the abuser. Especially, most cases of the physical abuse may result from the conflicts among family members. As for the self-neglect, the most significant agent was the family financial difficulties.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ystems supporting both abused older adults and family caregiving abusers to prevent the elder abuse and self-neglect at home.

Key words : Elder abuse, Self-neglect, Problems in old age, Adult protective services

I. 서 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노인 문제는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가정 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 행위는 노년기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 가운데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나 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편이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의 현황이나 노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실증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Pillemer, Burnes, Riffin, & Lachs, 2016).

노인복지법 제2조의2 제4호에 따르면,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의 일부는 노

인 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으로만 분류하고, 성적 학대나 자기방임, 유기 유형은 의도적으로 노인 학대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Kim, 2007; Kim, Kang, Lee, Cha, Yoo, & Kim, 2016; Kwon, 2007). 그 반면에 노인 학대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보는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방임까지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자기방임을 노인 학대 유형으로 여기는 것은 사회가 자기방임을 관대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공적 개입에 대한 책임이 담겨 있다(Lee & Jang, 2016; Park & Youn, 2001; Woo, 2014). 국내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미국 연방정부 산하 노인학대센터 모두 노인 스스로에 의한 자기방임의 경우도 노인학대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Killick, Taylor, Begley, Anand, & O'Brien, 2015; Lee & Kim, 2014).

Johannesen과 LoGiudice(2013)은 노인 학대의 위험요인을 가해자 요인, 피해자 요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이에 관련된 요인,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지난 20년간 발표된 노인 학대 연구 총 31편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은 노인 학대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으며, 돌봄 제공자와 돌봄을 받는 노인의 부양기대감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 노인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노인 학대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Kim et al., 2016). 그리고 자기방임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울 등을 포함한 정신적 특성, 사회적 지지관계망 요인들이 자기방임의 위험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Kim, & Kim, 2019; Kim & Lee, 2016).

노인 학대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위험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도 이를 찾아내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사회적 체제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는 가정에서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보건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능력개발, 병원 등 보건서비스

기관에 상담 중재 서비스 인력배치, 노인복지서비스팀에 노인 학대 담당관(Liaison Officer) 배치, 노인 학대 예방 네트워크 설립 등 노인 학대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 또는 보건서비스 기관들은 노인 학대 예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대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Jung, 2017; Kurrle & Naughtin, 2008).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사례들은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분석되고 있으며,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발생률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되는 노인학대의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사례들은 극히 일부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는 노인 스스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족관계의 일부로 여기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있고, 우리 사회의 돌봄 가치, 가정의 안전장치를 위한 정책적·조직적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Y. Jung, 2017).

우리나라는 노인 학대 예방사업의 하나로 2006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했으며, 여기에서는 노인 관련 정책 연구나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진 노인 학대 사례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여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현황 보고서는 가정 내 학대 사례뿐만 아니라 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까지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집계된 자료라는 측면에서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정 내 학대에 대한 자료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탐색했을 때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및 자기방임의 현황과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는 가정 내 노인 학대 및 자기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문제들은 1) 가정 내 노인 학대 유형이 학대 피해자 노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 가정 내 노인 학대 유형과

가족-환경 원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3) 가정 내 노인 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자 원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II. 방 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7년 한 해 동안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 4,129건이었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13,309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상담 진행을 통하여 수집된 4,622건 중에서 시설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를 제외한, 전제 사례의 89.3%에 해당된 것이었다.

<Table 1>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elder abuse victims at home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027 (24.9)
	Female	3,102 (75.1)
Household type	Living him/herself	886 (21.5)
	Living only with his/her spouse	1,188 (28.8)
	Living with another family member*	1,919 (46.5)
	etc.	136 (3.2)
People with dementia	Yes or questionable	291 (7.5)
	No	3,838 (92.5)
Recipients of State basic pensions	Yes	704 (17.3)
	No	3,425 (82.7)
Previously reported abuse case	Yes	348 (8.4)
	No	3,781 (91.6)

Note. * Living with at least one family member including children, grandchildren, and so on.

가정 내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가정 내 노인 학대 사례를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노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전체 사례의 75% 이상($N=3,102$)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자녀나 손자 등과 동거하는 노인이 피해자인 경우가 거의 절반($N=1,919$, 46.5%)을 차지했으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이 약 28.8%($N=1,188$ 명) 그리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이 약 21.5%($N=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로 진단을 받은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N=291$)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3%($N=704$)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학대 피해사례 중에서 과거에 학대로 보고되었던 사례는 약 8.4%($N=348$)이었다.

2. 자료 분석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학대 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특성 변인은 성별, 가구형태, 치매 여부, 국가기초생활수급 여부, 재(再)학대 경험 여부였다. 노인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성적 학대(sexual abuse),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및 유기(abandonment)로 구분했는데, 각 항목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중복된 상태로 구분했다. 여기에서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한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등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한 학대이며,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및 성폭력 등의 학대이며,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학대이며, 방임이란 부양의무자가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Johannesen & LoGiudice, 2013; Killick et al., 2015; Kim et al., 2016; Lee & Kim, 2014).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사례들 중에서 그 원인이 가족·환경인 경우를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피해자-학대 행위자 갈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은 노인의 부양이나 재산상속 문제 등으로 학대 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자녀나 형제, 친족들 사이에 생긴 갈등을 의미하는데, 여러 명이 이러한 갈등에 한꺼번에 연루될 수도 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란 학대 피해를 당한 노인 및 학대를 가한 행위자 등의 가계경제의 궁핍성 등을 의미한다. 한편 학대 피해자-행위자 갈등은 학대 피해를 당한 노인과 학대 가해자 사이의 갈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인 학대 발생의 원인이 학대 행위자에게서 발견되는 경우로는 개인의 내적 문제, 개인의 외적문제, 경제적 의존성, 과거 학대받은 경험, 신체적 의존성, 알코올 및 약물사용 장애, 정신적 의존성, 피해자 부양부담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

기에서 개인의 내적 문제란 고집, 자신감 결여, 분노나 충동성 또는 폭력성의 조절능력 결여 등 학대 행위자의 성격문제를 의미하며, 개인의 외적 문제란 학대 행위자의 이혼, 별거,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의 문제를 의미하며, 피해자 부양부담은 부양의무감 및 책임감으로 느끼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감을 의미한다(MOHW, 2018).

III. 결 과

1.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의 특성에 따른 학대 유형

학대 피해자 노인의 성별에 따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Table 2>에 소개되어 있다. 전체 4,129 사례 중에서 중복된 경우도 일부 있었는데, 정서적 학대가 2,922사례(70.8%)로 가장 빈번했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2,436사례(59.0%), 방임이

486사례(11.8%), 경제적 학대가 376사례(9.1%), 자기방임이 280사례(6.8%), 유기가 64사례(1.6%), 성적 학대가 65사례(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받는 학대 유형의 차이가 있었는데($\chi^2=164.28$, $p<.001$), 여성보다 남성보다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를 받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방임이나 자기방임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약간 더 높은 편이었다.

학대 피해자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형태에 따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Table 3>에 소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 형태에 따른 학대 유형의 차이가 드러났는데($\chi^2=1766.86$, $p<.001$),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적 학대의 비율은 거주 형태에 상관없이 다른 유형의 학대 비율보다 더 높지만, 특히 배우자하고만 같이 살고 있는 노인이나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과 살아가는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신체적 학대도 정서적 학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방임이나 자기방임의 경우는

<Table 2> Frequency and prevalence of elder abuse by gender (N (%))

Type of abuse	Total (N=4,129)	Male (N=1,027)	Female (N=3,102)	χ^2
Physical abuse	2,436 (59.0)	498 (48.5)	1,938 (62.5)	164.28*** (df=6)
Emotional abuse	2,922 (70.8)	633 (61.6)	2,289 (73.8)	
Sexual abuse	65 (1.6)	2 (0.2)	63 (2.0)	
Financial abuse	376 (9.1)	104 (10.1)	272 (8.8)	
Neglect	486 (11.8)	171 (16.7)	315 (10.2)	
Self-neglect	280 (6.8)	119 (11.6)	161 (5.2)	
Abandonment	64 (1.6)	35 (3.4)	29 (0.9)	

Note. Statistics of frequency and prevalence were presented by multiple types of elder abuse.

*** $p < .001$

<Table 3> Frequency and prevalence of elder abuse by household type (N (%))

Type of abuse	a (N=886)	b (N=1,188)	c (N=1,919)	d (N=136)	χ^2
Physical abuse	222 (25.1)	865 (72.8)	1,293 (67.4)	56 (41.2)	1766.86*** (df=18)
Emotional abuse	367 (41.4)	962 (81.0)	1,525 (79.5)	68 (50.0)	
Sexual abuse	12 (1.4)	39 (3.3)	12 (0.6)	2 (1.5)	
Financial abuse	122 (13.8)	51 (4.3)	184 (9.6)	19 (14.0)	
Neglect	249 (28.1)	52 (4.4)	161 (8.4)	24 (17.6)	
Self-neglect	229 (15.8)	13 (1.1)	26 (1.4)	12 (8.8)	
Abandonment	34 (3.8)	2 (0.2)	5 (0.3)	23 (16.9)	

Note. Statistics of frequency and prevalence were presented by multiple types of elder abuse.

a Living himself or herself

b Living only with his or her spouse

c Living with at least one family member including children, grandchildren, and so on.

d Older people who have no regular abode

*** $p < .001$

<Table 4> Frequency and prevalence of elder abuse by dementia (N (%))

Type of abuse	a (N=291)	b (N=3,838)	χ^2
Physical abuse	163 (56.1)	2,273 (59.2)	10.95 (df=6)
Emotional abuse	200 (68.7)	2,722 (70.9)	
Sexual abuse	9 (3.1)	56 (1.5)	
Financial abuse	23 (7.9)	353 (9.2)	
Neglect	42 (14.4)	444 (11.6)	
Self-neglect	27 (9.3)	253 (6.6)	
Abandonment	6 (2.1)	58 (1.5)	

Note. Statistics of frequency and prevalence were presented by multiple types of elder abuse.

a People with dementia or questionable

b Cognitively intact older adults

홀로 살고 있는 고령자에게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기의 경우는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는 고령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편이었다.

학대 피해자 노인의 인지기능 손상 여부에 따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Table 4>에 소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치매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스러운 집단과 인지기능

손상이 없는 집단 사이에 학대 유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10.95$, $p<.10$).

학대 피해자 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Table 5>에 소개되어 있다. 두 집단 간에 학대 유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chi^2=211.05$, $p<.001$), 신체적

<Table 5> Frequency and prevalence of elder abuse by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N (%))

Type of abuse	a (N=704)	b (N=3,425)	χ^2
Physical abuse	352 (50.0)	2,084 (60.8)	211.05*** (df=6)
Emotional abuse	400 (56.8)	2,522 (73.6)	
Sexual abuse	10 (1.4)	55 (1.6)	
Financial abuse	95 (13.5)	281 (8.2)	
Neglect	109 (15.5)	377 (11.0)	
Self-neglect	123 (17.5)	157 (4.6)	
Abandonment	15 (2.1)	49 (1.4)	

Note. Statistics of frequency and prevalence were presented by multiple types of elder abuse.

a Recipients of State basic pensions

b Non-recipients of State basic pensions

*** $p < .001$

<Table 6> Frequency and prevalence of elder abuse by previously reported case (N (%))

Type of abuse	a (N=348)	b (N=3,781)	χ^2
Physical abuse	212 (60.9)	2,224 (58.8)	10.01 (df=6)
Emotional abuse	266 (76.4)	2,656 (70.2)	
Sexual abuse	5 (1.4)	60 (1.6)	
Financial abuse	22 (6.3)	354 (9.4)	
Neglect	32 (9.2)	454 (12.0)	
Self-neglect	21 (6.0)	259 (6.9)	
Abandonment	2 (0.6)	62 (1.6)	

Note. Statistics of frequency and prevalence were presented by multiple types of elder abuse.

a Previously reported abuse case

b First reported abuse case

학대나 정서적 학대의 비율은 비수급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에 경제적 학대나 방임, 자기방임의 비율은 수급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전에 이미 노인 학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른 학대 유형의 차이를 살핀 결과는 <Table 6>에 소개되었다. 전반적으로 이전에도 학대로 신고가 되었던 집단과 처음 신고가 이루어진 집단 사이에 학대 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10.01$, $p<.10$).

2. 가족-환경 원인에 따른 가정 내 노인 학대 유형

가족-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가정 내에서 발

생하는 노인 학대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7> 참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95.55$, $p<.001$).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중에서 가해자인 가족 구성원과 피해자인 노인 사이의 갈등에 의한 것이 절대 다수(2,709사례)였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파생된 노인 학대가 1,005사례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생긴 사례가 615사례였다. 또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요인들보다 신체적 학대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피해자와 학대 행위자 사이의 갈등에 의한 경우에는 방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자기방임의 경우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이 높았다.

<Table 7> Frequency and prevalence of elder abuse by family-environmental agents (N (%))

Type of abuse	a (N=2,709)	b (N=1,005)	c (N=615)	χ^2
Physical abuse	1,316 (48.6)	591 (58.8)	325 (52.8)	95.55*** (df=12)
Emotional abuse	634 (23.4)	268 (26.7)	167 (27.2)	
Sexual abuse	5 (0.2)	1 (0.1)	0 (0.0)	
Financial abuse	97 (3.6)	23 (2.3)	18 (2.9)	
Neglect	488 (18.0)	84 (8.4)	65 (10.6)	
Self-neglect	97 (3.6)	26 (2.6)	31 (5.0)	
Abandonment	72 (2.7)	12 (1.2)	9 (1.5)	

Note. Statistics of frequency and prevalence were presented by multiple types of elder abuse.

a Elder abuse case by conflicts between the abused older adults and their offsprings

b Elder abuse case by conflicts among the offsprings of the abused older adults

c Elder abuse case by financial difficulties of the offsprings of the abused older adults

*** $p < .001$

3. 학대 행위자 원인에 따른 가정 내 노인 학대 유형

가정 내 노인 학대 가해자의 학대 원인에 따른 학대 유형을 살펴본 결과(<Table 8> 참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chi^2=830.525$, $p<.001$). 노인 학대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 문제가 가장 주된 것이었다.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분노, 고집스런 성격, 자신감 부족,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

의 결핍, 적대적 행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 성격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학대 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 개인의 외적 문제도 내적 문제에 이어서 학대의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역시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이나 의존 그리고 학대 행위자의 정신질환도 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학대 피해

<Table 8> Frequency and prevalence of elder abuse by abuser-related factors (N (%))

Type of abuse	a (N=2,587)	b (N=1,388)	c (N=897)	d (N=147)	e (N=312)	f (N=1,078)	g (N=901)	h (N=483)	χ^2
Physical abuse	1,650 (63.8)	819 (59.0)	595 (66.3)	101 (68.7)	229 (73.4)	797 (73.9)	666 (73.9)	199 (41.2)	830.53*** (df=42)
Emotional abuse	593 (22.9)	332 (23.9)	191 (21.3)	32 (21.8)	60 (19.2)	248 (23.0)	167 (18.5)	100 (20.7)	
Sexual abuse	7 (0.3)	3 (0.2)	0 (0.0)	0 (0.0)	0 (0.0)	1 (0.1)	1 (0.1)	0 (0.0)	
Financial abuse	42 (1.6)	24 (1.7)	43 (4.8)	0 (0.0)	3 (1.0)	5 (0.5)	8 (8.9)	16 (3.3)	
Neglect	169 (6.5)	101 (7.3)	50 (5.6)	14 (9.5)	5 (1.6)	9 (0.8)	28 (3.1)	140 (29.0)	
Self-neglect	114 (4.4)	56 (4.0)	14 (1.6)	0 (0.0)	15 (4.8)	18 (1.7)	31 (3.4)	5 (1.0)	
Abandonment	12 (0.5)	3 (0.2)	4 (0.4)	0 (0.0)	0 (0.0)	0 (0.0)	0 (0.0)	23 (4.8)	

Note. Statistics of frequency and prevalence were presented by multiple types of elder abuse.

a Intrinsic problems of the abusers (lack of impulsive control, stubbornness etc.)

b Extrinsic problems of the abusers (divorce, job loss etc.)

c Financial dependence on the abused older adult

d Abused experience in younger age

e Physical dependence on the abused older adult

f Alcohol/drug abuse and/or dependence

g Mental disorders (depression etc.)

h Caregiving burden or stress

*** $p < .001$

노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경우도 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원인에 상관없이 학대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원인에 상관없이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대 피해자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부담이 큰 것도 학대의 원인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원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임이나 유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IV. 논 의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의 하나는 생의 후반기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이며, 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속적으로 노인 학대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홍보 활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학대 발생을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자 신고 접수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면서 예방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실천적 노력이 사회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미흡한 편이다(K. Jung, 2017).

본 연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17년 조사했던 노인 학대의 현황 자료들 중 가

정 내에서 발생했던 노인 학대 및 자기방임에 대한 유형이나 발생원인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었다. 학대 유형이 중복된 경우가 있는 상태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례의 거의 71%가 정서적 학대, 약 59%가 신체적 학대로 주를 이루었으며, 방임의 경우가 12%, 경제적 학대가 9%, 자기방임이 7% 정도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노인 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남성 노인 피해자는 여성에 비해 방임이나 자기방임, 유기의 비율이 더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른 학대 유형의 분류에서는 고령자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방임이나 자기방임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고령자가 배우자하고만 살아가거나 자녀 등 다른 가족과 살아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도 수급자는 방임이나 자기방임 그리고 비수급자는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피해를 경험한 고령자의 성별이나 가구형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는 지역사회 거주자 조사 결과(Lee, Kim, & Kang, 2008), 대구지역의 조사 결과(Kim, 2019), 혼자 살고 있는 고령자 대상의 조사 결과(Lee & Park, 2014) 등과 매우 흡사했다. 노인 학대의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홀로 살아가고 있는 고령자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특히 자기방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

움을 겪으면서 홀로 살고 있는 남성 고령자의 경우 자기방임이 높았던 점을 간과하기가 어려운데, 고령자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기방임의 대응방안으로 개별화된 사례관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Lee, 2016).

노인 학대는 단 한 가지 명백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대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며, 그 원인도 상당수가 돌보는 역할을 맡는 자의 문제 또는 그와 학대 피해자인 고령자 사이의 관계 등 가족 환경에 관련된 요인들이다(Orfila, Coma-Solé, Cabanas, Cegri-Lombardo, Molerias-Serra, & Pujol-Ribera,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 유형을 가족 환경 원인에 따라 분석했는데, 그 결과 피해자인 고령자와 학대 가해자 사이의 갈등이 전체 사례의 63%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인으로 드러났다. 또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그리고 그들의 부양부담에 의한 학대 비율이 14% 정도였다. 학대 가해자들의 가해 동기나 원인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성격이나 충동조절 실패 등 가해자의 내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거의 1/3을 차지했으며, 이혼이나 실직 등 가해자의 외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까지 합할 경우 개인의 내적 및 외적 특성에 의한 학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정신과적인 문제, 경제적 궁핍 및 약물 사용 문제로 인한 학대 발생도 전체 사례의 1/4 정도를 차지하였다.

학대 유형 중에서 신체적 학대의 주원인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었던 반면에 자

기방임의 경우는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이 높았다. 자기방임의 조사 결과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학대를 비교한 연구(Kim et al., 2019)나 지역사회 거주 남성의 학대 피해를 살핀 연구(Kim & Lee, 2016)에서 나타난 현상과 매우 유사했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드러난 자기방임은 전체 학대사례의 6.8%에 불과했지만, 사실상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서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에 보고된 12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자기방임은 사망의 위험과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Dong, Simon, de Leon, Fulmer, Beck, Hebert et al., 2009). 우리나라는 근래 고령자 혼자서 살아가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특히 신체적으로 쇠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태에서 홀로 살아갈 경우 자기방임의 가능성이나 자살의 위험성도 큰 편이다(Kim, 2018; Lee, 2018). 비록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방임은 그와 같은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 등 효율적인 개입 방안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하는 학대 유형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기관에서 발생한 학대와 비교할 때 외부로 쉽게 표출되지 않은 사례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노인 학대 예방이나 근절을 위해 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필자는 가정 내 노인 학대 예방 및 발굴에 대한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에서 홀로된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체 고령자,

더 나아가서는 예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시켜주는 교육이나 훈련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고령자들은 혼자서 살아갈 경우 학대나 사고 발생에 매우 취약하다(Dong, 2015).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나 재정관리 등을 비롯하여 스스로 학대 피해의 취약성을 최소화 상태로 생의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사회참여의 여건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에서 고령자를 돌보는 부양가족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보다 더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정 내 노인 학대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이나 부양수당 등의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간단체 등을 통한 노인 학대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례관리 등의 지원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의 예방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고,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 가정 내 노인 학대 의심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 지역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병원을 방문하는 고령의 환자를 상대하는 주치의는 의심사례를 찾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Yaffe & Tazkarji, 2012). 다섯째,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노인 학대 예방 및 발굴이 필요하다. 농어촌지역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은 도시 노인과 비교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서비스 이용에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낮다(Lee, 2002). 따라서 가정을 방문하는 이동식 상담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 관련 교육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 학대 예방 및 발굴과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후 예방 차원의 노인 학대 연구를 위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의 문제는 다차원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 내 학대 행위자가 학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단순히 학대 피해자-행위자의 특정한 성격이나 갈등 상황 때문만은 아니다. 다양한 원인과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대 유형별 분석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학대 형태의 분석도 연구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통합적 연구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각 연구 영역들 간의 연결고리를 다분히 고려하는 생태학적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체의 관점에서 부분을 정교화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Dong, X. (2015). Elder abuse: systematic review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3 (6), 1214-1238.
- Dong, X., Simon, M., de Leon, C., Fulmer, T., Beck, T., Hebert, L., et al. (2009). Elder self-neglect and abuse and mortality risk in a community-dwelling popul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02 (5), 517-526.
- Johannesen, M., & LoGiudice, D. (2013). Elder abuse: A systematic review of risk factors in community-dwelling elders. *Age and Ageing*, 42 (3), 292-298.
- Jung, K. H. (2017). Elderly abuse in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47, 39-49.
- Jung, Y. M. (2017). Integrated model of care for responding to suspected elder abuse. *Global Urban Trend*, 410, 7-8.
- Killick, C., Taylor, B., Begley, E., Anand, C., & O'Brien, M. (2015). Older people's conceptualization of abus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7 (2), 100-120.
- Kim, H. G. (2019). Factors impacting on the types of elder abuse; Daegu metropolitan center for elder abuse prevention. *Korean Cultural Studies*, 42, 595-628.
- Kim, H. J. (2007).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the risk factors of elderly abus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7, 67-88.
- Kim, D. H., Kang, S., Lee, Y., Cha, Y., Yoo, S., & Kim, H. (2016). A systematic review of community elder abuse stud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6 (4), 1003-1024.
- Kim, J. S. (2018). A convergent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suicide of idea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 (5), 11-17.
- Kim, M. I., Kim, S., & Kim, J. (2019). Types of solidarit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old adults: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60, 37-63.
- Kim, M. Y., & Lee, J. (2016). Risk factors for self neglect of elderly males in the communit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71 (3), 29-51.
- Kurrie, S., & Naughtin, G. (2008). An overview of elder abuse and neglect in Australia.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0 (2), 108-125.
- Kwon, K. J. (2007). *Study on the process of*

- abusing elders: Centering around the experiences of offending daughter-in-law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a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S. (2002). A study of the social work intervention for maltreated elders: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derly abuse i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8 (3), 521-543.
- Lee, K. H., Kim, Y., & Kang, H. (2008). A study on determinants of elder abus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3 (3), 43-66.
- Lee, M. H. (2018).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elder self neglect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57 (Summer), 81-107.
- Lee, M. H., & Kim, K. (2014). Prevalence and risk factors for self-neglect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8 (2), 115-131.
- Lee, M. H., & Park, M. E. (2014). Understanding self-neglect by older-old adults living alone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41 (1), 123-142.
- Lee, M. J., & Jang, K. U. (2016). Comparison between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at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bused, abusers and abuse situatio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 (4), 221-255.
- Lee, Y. G. (2016).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39, 49-59.
- MOHW (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8). *Elder Abuse & Neglect Korea 2017 (2017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Sejong, Korea.
- Orfila, F., Coma-Solé, M., Cabanas, M., Cegri-Lombardo, F., Moleras-Serra, A., & Pujol-Ribera, E. (2018). Family caregiver mistreatment of the elderly: prevalence of risk and associated factors. *BMC Public Health*, 18 (1), 167: doi.org/10.1186/s12889-018-5067-8.
- Park, J. H., & Youn, G. (2001). Elder abuse in the aging socie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0, 113-134.
- Pillemer, K., Burnes, D., Riffin, C., & Lachs, M. S. (2016). Elder abuse: Global situation,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The Gerontologist*, 56 (Suppl_2), S194-S205.
- Woo, K. H. (2014). A Study of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elder self-neglect; Focused on domestic squalor not elder abuse.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42, 177-211.
- Yaffe, M., & Tazkarji, B. (2012). Understanding elder abuse in family practice. *Canadian Family Physician*, 58 (12), 1336-1340.
- 원고접수일: 2019. 10. 01.
수정원고접수일: 2019. 11. 05.
원고게재승인일: 2019. 11. 21.